



<이세돌> <박영훈> <이창호> <조훈현> <유창혁> <조한승> <박정상> <루이> <이영구> <흥성지> <윤준상> <진시영> <박정환>

한·중·일 '반상의 제왕'은 누구?

제13회 삼성화재배 세계바둑오픈(이하 삼성화재배)에 참가할 와일드 카드가 결정되는 등 한·중·일 3국이 벌이는 '별들의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기원은 15일 "삼성화재배 와일드 카드로 일본의 고바야시 고이치 9단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32강의 윤곽이 모두 드러났다.

일본은 국가 시드 2장을 제외하고 예선전에서 모두 탈락해 이 대회에 2명만이 참여하게 됐는데 고바야시 고이치의 와일드 카드 선정으로 그나마 자존심을 살렸다.

조치훈 9단의 리아벌로 잘 알려진 고바야시 고이치는 기타니 미노루 9단 문하에서 바둑을 배웠으며, 지난 1965년에 입단했다.

1977년 천원전 우승을 차지해 7대 기전 첫 우승을 맛봤고, 1986년부터 1993년까지 일본랭킹 1위 기전인 가상전에서 8연패를 달성해 명예기성에 올랐다. 명인전에서도 1994년까지 7연패를 일궈내는 등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 일본바둑의 실질적 1인자로

韓 14, 中 15, 日 3명 등 삼성화재배 32강 확정

와일드 카드에 日 고바야시 9단…내달 3일 본선

군림했다.

또 1996년 삼성화재배 1회 대회에 출전해 8강에 올랐다. 1회 대회에서 국가본선시드를 받지 못한 분을 참지 못하고 자비를 들여 예선에 참가했던 일희는 유명하다. 화려했던 명성에 비해 세계대회 성적은 그다지 좋지 않다.

세계대회 우승은 딱 한 차례로 1997년 후자

지즈배 우승이다. 지금까지 삼성화재배 와일드 카드를 받은 기사 중 가장 좋은 성적을 올린 기사는 조치훈 9단으로 8회 대회 때 우승을 차지했다. 조선진 9단도 4회 대회 와일드 카드를 받아 결승까지 올라갔지만 이창호 9단에게 무릎을 꿇고 준우승에 머물렀다.

본선에는 한국 14명, 중국 15명, 일본 3명이

나선다. 한국은 전기 대회 4강에 진출했던 이세돌, 박영훈이 전기 시드를 받았고 이창호, 조훈현, 유창혁은 랭킹 시드로 대회에 초대됐다. 또 목진석, 조한승, 박정상이 나리별로 배정된 국가 시드로 출전하게 됐다.

지난달 총 319명이 출전해 열띤 경합을 벌인 이 대회 예선전을 통해 투이나이웨이, 이영구, 흥성지, 윤준상, 진시영, 박정환 등 6명이 본선행을 결정 지었다.

중국은 구리, 황이중이 전기 시드를 땄고 창하오는 랭킹 시드를 받았다. 또 리자, 저우루이아는 국가 시드를 받았다. 저우하양, 왕시, 딩웨이, 천야오에, 콩지에, 씨에허, 리강, 스위에, 장리, 정엔 등 10명이 예선전을 통과해 본선 무대에 올랐다.

■ 역대 삼성화재배 현황

제1회	역대 우승자	와일드카드
제12회	이세돌	마사오촌
제11회	장하오	서봉수
제10회	류시희	오노노리모토
제 9회	이세돌	네웨이핑
제 8회	조치훈	조치훈
제 7회	조훈현	디케미아
제 6회	조훈현	루이니아웨이
제 5회	유창혁	왕루방
제 4회	이창호	조선진
제 3회	이창호	조남철, 후지사와
제 2회	이창호	홍태선, 천주더
제 1회	유다노리모토	김인하이핑

일본은 전기 시드와 랭킹 시드를 부여받지 못했고, 국가 시드 2장을 아직 선수를 정하지 못했다. 일본은 예선전에 기대를 걸었지만 총 47명이 출전해 단 한 명도 본선 무대를 밟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일본에게 와일드 카드 한장을 배정했다는 후문이다.

대회 우승 상금은 2억원이며, 모든 대국은 각자 제한시간 2시간에 1분 초읽기 5회로 진행된다. 오는 9월3~5일 본선 32강전이 열릴 예정이며, 준결승과 결승은 각 3번기로 진행하며 3전 2선승제로 승부를 가린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두마리 토끼를 잡다

4회전 3국 총보 (1~225)

白 허우석 5단 黑 김영수 5단
(복구청)

195	193	217	210	209	58	198	197	70	224	223
25	192	63	56	57	54	28	62	64	65	
13	24	8	194	60	59	53	52	14	68	21
27	26	23	28	12	55	50	51	112	15	155
29	11	44	31	43	39	18	69	80	158	156
30	22	46	15	14	22	21	182	159	151	157
10	42	38	19	10	13	16	16	13	162	
41	12	200	13	17	26	25	181	179	172	174
103	136	105	107	111	27	28	130	176	168	171
72	37	80	71	13	106	108	20	129	134	145
76	104	132	133	135	140	167	164	165	144	
109	123	138	143	166	178	178	204			
20	100	89	141	139	220	177	4	186	203	
98	97	79	87	88	90		183	16		
102	101	2	99	75	73	78	92	91	85	33
82	81	83	77	74	36	86	32	17	25	22
84	95	142	63	96	34	35	25	206	94	188

이 판은 직장 바둑계의 영원한 라이벌인 김영수 5단과 허우석 5단의 대결로 특별한 관심을 모았던 한판이었다.

결과는 김영수 5단의 패승으로 김 5단은 이 승리로 단체전 우승과 개인전 4강 진출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쾌거를 이룩했다.

허우석 5단은 승리와 관계없이 북구청팀은 이미 입상권에서 멀어진데다가 개인전 4강 진출도 힘들어 아무래도 전의가 많이 끊인 듯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허우석 5단은 승리와 관계없이 북구청팀은 이미 입상권에서 멀어진데다가 개인전 4강 진출도 힘들어 아무래도 전의가 많이 끊인 듯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허우석 5단은 승리와 관계없이 북구청팀은 이미 입상권에서 멀어진데다가 개인전 4강 진출도 힘들어 아무래도 전의가 많이 끊인 듯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허우석 5단은 승리와 관계없이 북구청팀은 이미 입상권에서 멀어진데다가 개인전 4강 진출도 힘들어 아무래도 전의가 많이 끊인 듯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허우석 5단은 승리와 관계없이 북구청팀은 이미 입상권에서 멀어진데다가 개인전 4강 진출도 힘들어 아무래도 전의가 많이 끊인 듯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허우석 5단은 승리와 관계없이 북구청팀은 이미 입상권에서 멀어진데다가 개인전 4강 진출도 힘들어 아무래도 전의가 많이 끊인 듯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허우석 5단은 승리와 관계없이 북구청팀은 이미 입상권에서 멀어진데다가 개인전 4강 진출도 힘들어 아무래도 전의가 많이 끊인 듯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허우석 5단은 승리와 관계없이 북구청팀은 이미 입상권에서 멀어진데다가 개인전 4강 진출도 힘들어 아무래도 전의가 많이 끊인 듯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허우석 5단은 승리와 관계없이 북구청팀은 이미 입상권에서 멀어진데다가 개인전 4강 진출도 힘들어 아무래도 전의가 많이 끊인 듯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허우석 5단은 승리와 관계없이 북구청팀은 이미 입상권에서 멀어진데다가 개인전 4강 진출도 힘들어 아무래도 전의가 많이 끊인 듯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허우석 5단은 승리와 관계없이 북구청팀은 이미 입상권에서 멀어진데다가 개인전 4강 진출도 힘들어 아무래도 전의가 많이 끊인 듯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허우석 5단은 승리와 관계없이 북구청팀은 이미 입상권에서 멀어진데다가 개인전 4강 진출도 힘들어 아무래도 전의가 많이 끊인 듯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허우석 5단은 승리와 관계없이 북구청팀은 이미 입상권에서 멀어진데다가 개인전 4강 진출도 힘들어 아무래도 전의가 많이 끊인 듯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허우석 5단은 승리와 관계없이 북구청팀은 이미 입상권에서 멀어진데다가 개인전 4강 진출도 힘들어 아무래도 전의가 많이 끊인 듯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허우석 5단은 승리와 관계없이 북구청팀은 이미 입상권에서 멀어진데다가 개인전 4강 진출도 힘들어 아무래도 전의가 많이 끊인 듯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허우석 5단은 승리와 관계없이 북구청팀은 이미 입상권에서 멀어진데다가 개인전 4강 진출도 힘들어 아무래도 전의가 많이 끊인 듯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허우석 5단은 승리와 관계없이 북구청팀은 이미 입상권에서 멀어진데다가 개인전 4강 진출도 힘들어 아무래도 전의가 많이 끊인 듯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허우석 5단은 승리와 관계없이 북구청팀은 이미 입상권에서 멀어진데다가 개인전 4강 진출도 힘들어 아무래도 전의가 많이 끊인 듯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허우석 5단은 승리와 관계없이 북구청팀은 이미 입상권에서 멀어진데다가 개인전 4강 진출도 힘들어 아무래도 전의가 많이 끊인 듯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허우석 5단은 승리와 관계없이 북구청팀은 이미 입상권에서 멀어진데다가 개인전 4강 진출도 힘들어 아무래도 전의가 많이 끊인 듯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허우석 5단은 승리와 관계없이 북구청팀은 이미 입상권에서 멀어진데다가 개인전 4강 진출도 힘들어 아무래도 전의가 많이 끊인 듯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허우석 5단은 승리와 관계없이 북구청팀은 이미 입상권에서 멀어진데다가 개인전 4강 진출도 힘들어 아무래도 전의가 많이 끊인 듯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허우석 5단은 승리와 관계없이 북구청팀은 이미 입상권에서 멀어진데다가 개인전 4강 진출도 힘들어 아무래도 전의가 많이 끊인 듯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허우석 5단은 승리와 관계없이 북구청팀은 이미 입상권에서 멀어진데다가 개인전 4강 진출도 힘들어 아무래도 전의가 많이 끊인 듯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허우석 5단은 승리와 관계없이 북구청팀은 이미 입상권에서 멀어진데다가 개인전 4강 진출도 힘들어 아무래도 전의가 많이 끊인 듯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허우석 5단은 승리와 관계없이 북구청팀은 이미 입상권에서 멀어진데다가 개인전 4강 진출도 힘들어 아무래도 전의가 많이 끊인 듯 무